

일제 강점기 중국인의 시선으로 본 식민지 조선인*

- 1920~40년대 조선인 제재(題材) 중국 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고재원**

〈차 례〉

1. 머리말
2.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
3. 만주(국)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
4.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조선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조선인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중국 현대 단편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중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으로, 이들은 소설 속에서 나라를 잃고 망명객으로 떠돌아다니며 항일운동을 하는 조선인 젊은이들이다. 둘째는 만주(국)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이다. 우선 식민지이자 다민족 국가의 성격을 갖는 만주국에 사는 가난한 조선인으로,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삶을 사는 조선인이다. 다음은 도시에서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는 무뢰한 조선인이다. 마지막은 가난과 차별을 딛고 민족의 정체성과 약자들의 연대의식을 각성하는 조선인 소년과 소녀이다. 이들 조선인 소년, 소녀는 민족주의와 그것을 넘어서 국제주의를 체현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셋째는 식민 본국 일본에 사는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조선인으로, 소설은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당하는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소설 속 식민지 조선인의 삶과 고통을 통해 당시 일제 식민주의를 비판하면

* 본 논문은 2022년 12월 8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행동하고 고통받는 인간, 그리고 예(禮)·치(治)』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2년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서 대립과 위계를 내면화한 서구 중심의 근대적 사유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현대소설, 식민지 조선인, 만주국, 식민주의, 국제주의

1. 머리말

17세기 명청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은 조선과 달리 이전 명나라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18세기 청나라 시기에 각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모습과 함께 조공 관계가 있거나 내왕이 있는 나라들의 남녀 모습을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와 국정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붙여 간행한 『황청직공도(皇淸職貢圖)』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조선은 청에 복속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고, 책봉을 받으며 때마다 조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당나라의 관제와 복식을 이어가고 있고 문자를 알아 책 읽기를 좋아하며 관리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어 ‘중화’의 교화를 입은 이른바 ‘同文同種’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²⁾ 즉, 조공 체제 속에서 유가 문화를 체화한 조선(인)은 타자가 아니라 중화 문명의 일원인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말 부상하는 일본과 조선을 두고 벌인 청일전쟁(1895년)에서 패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에 타이완을 할양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또한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분할 통치의 위기에 점차 직면하게 되었다. 즉,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조공 체제가 무너지면서 서구의 근대 민족국가 개념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청 시기 조선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시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말 민국 초기

1) 청 건륭 16년(1751년)에 아홉 권으로 간행된 도화책이다. 채색 그림 원본은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 소명출판, 2017, 188쪽 각주 6 재인용.

2) 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 소명출판, 2017, 188~189쪽 참조.

에 영향력 있던 사상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량치차오(梁啓超)는 당시 조선의 근대 지식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량치차오는 조선에 관한 글을 10여 편 썼는데, 조선 망국의 과정을 냉철하게 기록하고 분석한 『조선 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과 『조선 멸망의 원인(朝鮮滅亡之原因)』 외에도 여러 편의 글에서 량치차오는 “조선의 멸망에 대한 동정, 이른바 속국 이탈리아 상실감과 서운함, 경쟁자인 일본의 강권에 대한 견책, 망국의 근원으로 본 조선의 지배층 성향 및 국민성 비판”³⁾ 등을 드러냈다. 또한 일부 글에서는 조선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망명 시기에 접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조선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근대 전환기로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후 반일 민족주의의 확산과 서구의 침탈에 날 선 경계를 멈추지 않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근대화를 추구하고 근대국가 성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중국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서구 근대성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중국의 신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17년 이후 조선(인)을 제재로 한 소설이 간혹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 신문학에서 조선인이 중요한 현실로 다가온 것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이후 만주국 수립으로 인한 일제의 중국 침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와 1930년대에 조선인의 중국으로의 이주가 급증했는데, 1910년대는 일제의 농촌 수탈이 시작되던 시기로 당시 농촌에서의 삶이 어려워진 조선의 북쪽 지역(함경도)의 농민들이 간도(연변)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선인의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변지역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형식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의 만남과 교류가 있었지만, 집단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이 만남과 교류를 이루기 시작한

3) 량치차오, 최형욱 편역,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파주 : 글항아리, 2014, 7쪽.

4) 량치차오, 최형욱 편역, 같은 책, 8쪽.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는 일제가 만주국을 건국한 후 중국 침략의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 대도시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공업 단지 건설 등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인의 수요가 급증했다. 즉, 일제의 만주 침략정책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 증가와 열악해진 식민지 조선의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 일제의 조선인 만주국 이민 정책이 실행되었던 시기였다.⁵⁾ 이 시기 조선인이 주로 이주한 지역은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역으로 1930년에 60만 명 정도였다가 1940년에는 동북 3성 거주 조선인 수는 14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⁶⁾ 따라서 이 동북 3성 지역이 기반인 이른바 ‘동북작가군’⁷⁾에 속하는 중국 작가들은 일제-조선이라는 현실을 직접 겪게 되었고, 그들의 작품 속에 식민지 조선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조선인을 제재로 한 중국 현대소설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김시준의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中國文學』 31권, 1999)와 박재우의 『중국 현대 韓人題材小說 시탐(1917~1949)』(『中國研究』 18호, 1996)과 『중국 현대 韓人題材小說의 심층적 연구』(『中國研究』 33호, 2004)가 있다. 이 세 논문에서 발굴하고 정리한 조선인 제재 중국 현대소설은 단편 22편, 장편 9편으로 총 31편이고, 이후 2017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새롭게 조사해 추가한 작품이 단편 8편과 장편 1편으로, 총 9편을 추가로 발굴하고 정리했다. 이로써 1919년에서 1947년까지 중국 작가들이 조선인을 제재로 쓴 소

5) 윤취탁, 『뿌리 뽑힌 자들의 방랑지! : 조선인에게 비쳐진 만주국 사회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66호, 2011.03, 276~277쪽.

6) 윤취탁·김경일·임성모·이동진,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20세기 전만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16~21쪽.

7) 중국의 ‘동북작가군’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그들의 고향이었던 동북 3성 지역에서 베이핑 및 상하이와 옌안 등 내륙 지역으로 가서 문학 활동을 했던 일군의 작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일제가 세운 만주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민의 삶을 주로 묘사하여, 일제의 침탈 및 억압과 이로 인한 어두운 사회상을 비판하는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다. 대표 작가로 샴오쥘(蕭軍), 샴오홍(蕭紅), 수쥘(舒群), 바이량(白朗), 뤼펑(羅烽), 뤼무홍량(端木蕻良), 뤼빈지(駱賓基), 리후이잉(李輝英) 등이 있고, 이들의 작품들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대표적인 항일문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두(百度) 백과사전 참조.

설은 총 40편으로, 단편소설 30편, 장편소설 10편이다.⁸⁾ 그리고 2021년 박정태의 『1930~40년대 동북작가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동아인문학 55권, 2021)에서 동북작가인 뤼핑[羅烽]의 『후란허 강변(呼蘭河邊…)』, 샤오홍[蕭紅]의 『아려(亞麗)』, 위헤이딩[于黑丁]의 『벌판(原野)』을 추가로 발굴하여, 현재까지 중국 작가들이 쓴 조선인을 제재로 한 소설은 총 43편으로, 단편소설 33편, 장편소설 10편이다.

위에 해당하는 작품 중 일부 몇 편이 번역되기도 했지만, 2017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선집으로 나온 『중국문학 속의 한국』과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은 각각 단편소설 9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처음으로 출판한 것이다. 『중국문학 속의 한국』⁹⁾(홍정선·최창륜 엮음, 최창륜 옮김, 소명출판, 2017)은 항일투쟁을 하는 조선인이라는 주제로 중국 작가들이 조선인 중에서도 항일투쟁에 뛰어든 조선 젊은이들에 대해 쓴 작품 9편을 모았고,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¹⁰⁾(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소명출판, 2017)은 ‘이웃’으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주제로 주로 일상 속에서 중국인들이 ‘이웃’으로 만난 조선인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 9편을 모은 것이다.

중국 작가들이 조선인을 제재로 쓴 현대 소설들에 대한 한국의 기존 연구는 작품 발굴과 분류 정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주제와 단편적인 관점으로 조선인 제재 소설을 분석하여 작품 속에 투영된 당시 중국인과 조선인의 복잡한 관계와 연대 의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근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

8) 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 소명출판, 2017, 207쪽, 조선인 제재 중국 소설 목록(1919~1947) 참조.

9) 수록 작품은 다음과 같다. 『압록강 위에서』(장광츠[蔣光赤]), 『유랑인』(장평원[張萍川]), 『어느 부인』(무스잉[穆時英]), 『조국이 없는 아이』(수원[舒群]), 『머리카락 이야기』(바진[巴金]), 『만주 이야기』(다이핑완[戴平萬]), 『가야』(무명씨[無名氏]), 『붉은 악마』(무명씨[無名氏]), 『김영』(류바이위[劉白羽])

10) 수록 작품은 다음과 같다. 『양치기의 슬픈 이야기』(귀모뤄[郭沫若]), 『나의 이웃』(타이징농[臺靜農]), 『이웃』(수원[舒群]), 『또 다른 거래』(리후이잉[李輝英]), 『어느 조선인』(페이안[非庵]), 『새로운 계획』(리후이잉[李輝英]), 『인견』(자오샤오쑹[趙小松]), 『바다 저편』(수원[舒群]), 『뜻사랑』(뤄빈지[駱賓基])

한 분석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인 제재 중국 현대 단편소설 18편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번역한 『중국문학 속의 한국』과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 이 두 선집을 텍스트로 하여,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을 침탈했던 시대 상황과 중국에서의 조선인의 실태에 근거하여 당시 중국 작가들이 바라본 식민지 조선인의 형상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이고, 다음은 식민지이자 다민족 국가의 성격을 가진 민주(국)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이며, 마지막으로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조선인이다.

2.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

그 유랑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젊은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말발굽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는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투쟁한 고려인이다. 지금도 나의 뇌리 속에서 그는 젊은이로 남아 있다.¹¹⁾

위 인용문은 장평천[張萍川]이 쓴 「유랑인」의 첫 대목이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중국인이 깊은 연민과 함께 경의를 보냈던 식민지 조선인은 일제에 저항하던 사람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타이정농[臺靜農]의 「나의 이웃」(1928), 장광츠[蔣光赤]의 「압록강 위에서」(1928), 장평천의 「유랑인」(1929), 바진[巴金]의 「머리카락 이야기」(1936), 수첸[舒群]의 「바다 저편」(1940)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나라를 잃고 망명객으로 떠돌아다니며 항일운동을 하는 조선인 젊은이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1920년대에 일부 중국 작가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주요 인물로 한 작품을 쓴 것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작가가 추구하는 사상 및 신념

11) 장평천, 「유랑인」, 『중국문학 속의 한국』(홍정선, 최창록 엮음, 최창록 옮김), 소명출판, 2017, 49쪽.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의 이웃』을 쓴 타이징농[한자명 삭제]¹²⁾은 문학동인 단체인 미명사(未名社) 활동을 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온 김구경(金九經)과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1928년 당시 김구경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다가 베이징에 갔었고, 초기에 미명사에 잠시 머물며 타이징농을 비롯한 미명사 동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이 시기 타이징농은 김구경에게 일본에서 조선인 박열이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을 들었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¹³⁾

소설의 내용을 보면, 화자인 대학생 ‘나’가 머무는 하숙집에 한 청년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광둥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의 밖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뜰에서 마주치며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신을 조선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그때서야 나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온 이 조선 청년의 불안한 삶과 고통 그리고 가족들과의 이별의 이픔을 생각하며 그동안 오해했던 것을 참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경찰이 갑자기 와서 그를 연행해 갔는데 집주인은 돌아왔으나 그 청년은 다시 볼 수 없었다. 일 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어떤 조선인이 일본 황궁을 폭파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사형을 당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그 범인의 사진이 바로 일년 전 나의 옆방에 거주했던 그 조선 청년이었다.

이 작품은 나라를 잃은 식민지 조선인의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숨어 살다시피 해야 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조선인 청년의 발걸음 소리와 성냥 굶는 소리 등 청각적 묘사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당시

12) 타이징농(臺靜農, 1902~1990)은 안후이(安徽)성 사람으로,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이다. 1922년에 신시집 『보도(寶刀)』를, 1923년에 첫 소설 『상처입은 새(負傷的鳥)』를 발표하면서 시인과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5년 루쉰과 알게 되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1926년 루쉰과 함께 문학단체 未名社를 창립하였다. 항일 전후로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근무했으며, 1946년 타이완으로 건너가 국립 타이완대학 중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13)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1권, 한국중국어학회, 1999, 181쪽.

조선인과 친구나 동료 등의 관계로 교류했던 개인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의 불안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압록강 위에서』를 쓴 장광츠¹⁴⁾는 1921년에 소련의 모스크바 공산주의 노동대학에 유학했을 당시 조선에서 망명 온 동창생이 어느 날 그가 조국을 떠나 소련으로 망명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소설화한 것이라고 한다.¹⁵⁾ 이 작품 역시 나라를 잃은 식민지 조선인의 비애와 고통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한 한 조선인 청년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연애사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모스크바의 한 대학에 유학 온 중국인과 조선인 그리고 이란인이 함께 지내는 기숙사 방에서 소설의 주인공인 조선인 이맹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맹한과 그의 연인인 김운고는 모두 조선 양반 가문의 후예들로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다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두 집안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고 이맹한의 부모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살해된다. 이맹한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었지만 부친의 친구인 김운고의 아버지가 돌봐주면서 김운고와도 서로 슬픔과 고통을 달래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일제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맹한을 체포하려고 하자 결국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머물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망명한다. 이맹한이 떠난 후 김운고는 고려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부 서기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수감 되어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소식을 들은 이맹한은 슬픔과 분노에 울부짖으며 복수의 날을 기다린다는 비극적 내용이다.

14) 장광츠(蔣光赤, 1901~1931)는 안후이성 사람으로 중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1921년 모스크바 공산주의노동대학교를 다녔으며 1921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24년 귀국 후 상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1928년 좌익문학단체인 태양사 창립에 참여하여 『태양월간』, 『척황자(拓荒者)』 등 다수의 문예지를 주관하였다. 1930년 3월 중국좌익작가연맹 성립 당시 후보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1년 8월 폐렴으로 별세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포효하는 대지(咆哮了的土地)』(1930)가 있다.

15)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1권, 한국중국인문학회, 1999, 181쪽.

이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좌익작가로서 당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피식민지인들과의 연대와 피억압 민족의 자결을 주장하는 레닌의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썼다고 볼 수 있다. 작품 구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설 속 화자인 중국인인 ‘나’의 시선이 아니라 서사의 주체인 조선인 이맹한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바진¹⁶⁾의 『머리카락 이야기』는 당시 조선의 아나키스트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유기석(柳基錫)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쓴 작품이다. 바진은 1920년대에 아나키즘을 추구하여 당시 조선의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였고 1924년에 베이징[北京]에서 당시 국풍일보(國風日報) 기자로 있던 베이징대학 출신의 조선인 심용해(沈容海)를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그의 친구인 유기석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서로 연락하며 친밀하게 지냈다고 한다. 1930년에 심용해가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피살되자 유기석은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하였고 그런 중에도 유기석은 바진과 서로 연락을 하며 만났었다고 한다.¹⁷⁾ 바진의 이런 개인적 경험은 이 소설의 직접적인 창작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은 화자인 ‘나’가 5년 전에 만났던 조선인 친구 숲을 떠올리며 시작된다. 나는 1년 만에 만난 조선인 독립운동가인 숲이 몰라볼 정도로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김이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조선인 숲은 친구인 박이 용감하게 일본군과 싸우다 죽자 스스로 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 어느 날 독립군 지역을 일본군이 포위하며 전투가 벌어졌고 밤새 싸우다 보니 총탄이 떨어져서 도망가

16) 바진(巴金, 1904~2005)은 저명한 중국 현대 소설가이며 번역가이자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1920년대 초부터 아나키즘을 추구하였고, 1927년에 프랑스를, 1934년에는 일본을 다녀왔다. 1935년부터 상해 문화생활출판사 편집장으로 『문화생활공간』, 『문학공간』 등을 주간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구명일보(救亡日報)』 편집위원, 중화전국문예계항적협회(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 중국작가협회 상해분회 주석을 맡았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77년 이후 중국작가협회 주석,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공직을 맡았으며, 2003년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인민작가’의 영예를 수상하였다. 대표작으로 격류 3부작인 『집(家)』(1933), 『봄(春)』(1938), 『가을(秋)』(1940) 등과 5부작 산문집 『수상록(隨想錄)』(1978~1986)이 있다.

17)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1권, 한국중국어문화회, 1999, 182~183쪽.

다가 수수밭 속에 숨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본군의 추적
적을 피해 있다가 근처의 이는 민가로 찾아갔더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는 것이다. 이상해서 물었더니 사흘 만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숯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나의 손을 굳게 잡은 후 떠났다.

이 작품은 일제에 저항하며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비장한 삶과 고통을 사흘 만에 백발이 된 조선인 친구의 모습을 통해 담담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설의 화자인 ‘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며
무장투쟁을 하는 조선인 친구를 보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감히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자 그런 삶을 살아
내는 조선인에 대한 존경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3. 만주(국)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에 거주하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중국
작가들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고 중층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
‘동북작가군’ 작가들이 쓴 조선인을 제재로 한 소설들이다. 1930년대 이후
동북작가들이 쓴 조선인을 제재로 한 작품에는 농민과 노동자, 항일유격대원
부터 일제 앞잡이와 불법 범죄집단까지 만주에 사는 다양한 식민지 조선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동북작가들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실주의에 기반
하여 반일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서로 교
차하고 어우러진 가운데 만주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만주
지역은 19세기 말부터 한족과 만주족을 비롯하여 몽골족, 회족, 조선인, 러시
아인 등 다수의 민족이 모여들어 삶을 모색하던 곳이라는 점이다. 1932년
만주국 수립 후에는 일제가 지배 민족으로 등장하면서 하나의 지배 민족과
복수의 피지배 민족이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식민 통치구조”를 가지게 되었
다. 즉, 만주국은 식민-피식민의 지배구조 외에도 피지배 민족들 사이의 이

해관계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까지 겹쳐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양상이 드러나는 곳이었다. 원래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만주족은 만주 지역에 대한 본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국에서 온 이주자와 중국 내륙에서 온 한족들은 만주 지역에 대한 뿌리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고, 만주국에 대한 소속감도 거의 없었다.¹⁸⁾ 또한 일제는 국제사회에서 만주국을 괴뢰국이 아닌 독립 국가로 보이기 위해 입헌군주제의 왕과 내각의 장관급 직책을 현지 중국인(만주족, 한족 포함)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만주국을 실제로 통치한 것은 관동군의 지도하에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이었다.¹⁹⁾ 하지만 보통의 중국인들은 당시 일제의 만주 지역 침탈과 만주국 수립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무저항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민간에서 ‘반일항만(反日抗滿)’ 운동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세기 중반 이후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계속 증가하면서 조선인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만주 지역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이 집단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시준은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지역에서 거주하던 조선인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농민, 둘째는 일제 강점기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던 애국지사들, 셋째는 1931년 이후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²⁰⁾ 첫째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농민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농촌에서의 삶이 어려워진 함경도 지역의 농민들이 간도(연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1931년 이후 만주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일제의 만주국 이민 정책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이민 동기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전체의 약 76.5%를 차지했다. 이외에 일제의 징병이나 징용을 피해서 오거나

18) 윤휘탁, 『‘만주국’의 통치체제 구축과 현지인 협력자』, 『아세아연구』 통권 126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06.12, 122~123쪽 참조.

19) 같은 논문, 124~125쪽 참조.

20)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1권,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178쪽.

부모의 항일운동과 그로 인한 일제의 탄압을 피해 오는 경우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²¹⁾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수는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940년에는 145만여 명에 이르렀고, 중국 전체로 본다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자의 직업분포도를 살펴보면,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주했지만, 만주에서도 가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5년 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간도 지역의 조선인의 직업 분포를 보면 무직자가 평균 70%를 넘었고, 농목임업 종사자는 8~9%이며, 상공업 종사자는 10% 내외였다. 또한 만주국의 3대 도시인 랴오닝성[遼寧省]의 평톈[奉天](지금의 선양[瀋陽]), 지린[吉林]성의 신징[新京](지금의 창춘[長春]),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하얼빈[哈爾濱] 거주 조선인의 직업분포도를 보면, 무직자가 65% 내외이고, 상공업 종사자는 도시마다 15~25% 정도이지만 대부분 노동자나 점원, 행상이었다. 농목임업 종사자는 10% 미만으로 지주나 자작농의 비율은 0.4%~2.5%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만주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공무원은 2.2%를 차지하고, 언론인과 예술가 및 의사 등 전문직의 비율은 3.6%와 4.2%에 불과했다고 한다.²²⁾ 이는 1930년대 만주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대부분이 여전히 가난 속에서 생존의 고통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가난했던 조선인은 역시 가난한 중국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이웃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즉, 만주(국)에서 대부분의 중국인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선인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난한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이 시기 만주(국)으로 이주해 온 이유는 대부분 생계를 도모할 일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방임적인 만주국 이주 정책으로 온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만주국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없었다. 또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온 가난한 내륙의 중국인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

21) 윤휘탁, 『뿌리 뽑힌 자들의 방랑지! : 조선인에게 비쳐진 만주국 사회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282~285쪽.

22) 윤휘탁, 같은 논문, 273~274쪽.

에 일자리 경쟁에서 조선인이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권[舒群]²³⁾의 『이웃』과 자오샤오쑹[趙小松]²⁴⁾의 『인견』은 만주(국)에 사는 가난한 조선인의 처절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먼저 수권의 『이웃』이라는 작품은 아들 셋이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가고 만주에 남겨진 조선인 모녀가 가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화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담담히 보여주고 있다. 화자인 ‘나’는 조선인 모녀가 사는 이 집에 세 들어 살게 되면서 이 조선인 모녀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집주인인 어머니는 생존을 위해 결국 딸에게 매춘을 강요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작품은 당시 만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조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착잡한 심정과 싫어도 살기 위해 매춘을 해야 하는 딸의 절망적인 심정 모두를 따듯한 시선을 바탕으로 두고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가난과 고통의 원인이 일본어 통역관으로 상징되는 일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본어 통역관은 조선인 모녀에게 접대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린다. 즉, 일제는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처절한 삶 자체를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오샤오쑹의 『인견』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인조건을 밀매하는 조선인 무리의 대장인 이복영과 이들을 단속하는 중국인 세관 단속반의 추격전이 생동감있게 묘사되어 있는 소설이다. 인조건을 구입하기 위한 밀천 마련을 위해 딸까지 팔아버린 이복영과 그를 중심으로 한몫 잡아 번듯한 생활을 꿈

23) 수권(舒群, 1913~1989)은 만주족 출신 작가로 ‘동북작가군’의 대표주자이다. 헤이룽장성 아청(阿城)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난으로 동북상선학교(東北商船學校)를 중퇴하고 1931년 고향에서 항일의용군에 참가했고, 1932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33년에 『조국이 없는 아이』로 등단했으며 1935년 중국 좌익작가연맹에 가입했다. 이후 연안 루쉰예술학원 문학과 학과장, 동북대학 부총장, 동북영화제작사 사장, 중국작가협회 비서장등을 역임했다.

24) 자오샤오쑹(趙小松, 1912~미상)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산(黑山)에서 태어났다. 1930, 40년대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로 일본이 지원하는 동인 문예잡지 『에문지』의 창간에 참여하고 이 잡지를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했다. 1934년부터 1937년 사이에 선양(瀋陽)의 『민성만보(民聲晩報)』, 다롄(大連) 『만주보(滿洲報)』의 문예관, 창춘(長春)의 월간지 『명명(明明)』 등의 편집을 담당하기도 했다. 중일전쟁 승리후에는 동북지역 중소우의협회 일을 보았으며 창춘 『광명일보(光明日報)』의 편집을 담당했다. 신중국 수립 후에는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철도인쇄국 국장을 맡았다. 대표작으로 단편집 『사람과 사람들(人和人們)』(1942)이 있다.

꾸며 만주로 온 조선인 밀매꾼들 그리고 그들을 팔아넘기고는 배신을 숨기기 위해 단속반원의 모진 폭행을 견뎌내는 김씨 청년 등 당시 만주국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가는 조선인의 처절한 삶이 잘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은 목숨을 걸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참담한 조선인의 삶과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목숨을 건 거친 삶을 살아야 하는 중국인 세관 단속반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소설 서두의 “인조건 : 세율 40% - 강덕(康德) 원년 만주국 세관 수입세 세칙”과 마지막 문단인 “세관은 대량의 인견을 압수했다. 그 가치는 사천 위안이다. 김은 한 병원에 입원했고, 세관으로부터 천 이백 위안을 받았다. 김의 치료비가 그리 많이 들었을 터이 없다.”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 치하의 만주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모두 식민지인으로 가난 속에서 위태로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리후이잉(李輝英)²⁵⁾의 『또 다른 거래』와 『새로운 계획』은 당시 만주국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본을 뒷배로 또는 일본인의 앞잡이로 중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는 일부 조선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또 다른 거래』는 아이들을 유괴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조선인 집단의 잔인한 모습과 유괴당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중국인 부부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은 일본인을 뒷배로 둔 ‘고려인’ 김구동(金九東), 김구여(金九如) 형제가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오래된 여관을 운영하는 중국인을 꼬드겨 여관에서 불법적으로 마약, 도박, 매춘, 밀수까지 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여관 주인인 중국인은 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불법도박으로 여관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다.

리후이잉은 이 두 작품을 쓰기 전에 만주국의 도시지역을 돌면서 일제와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불법적인 만행 사례를 취재했다고 한다.²⁶⁾ 아

25) 리후이잉(李輝英, 1911~1991)은 만주족 출신 작가로 지린(길림)성에서 태어났다. ‘동북작가군’에 속하는 작가로 동북 지역의 항일활동을 제재로 한 소설을 많이 썼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으며, 1950년부터는 홍콩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했다. 장편소설로는 『만보산(만보산)』, 『송화강에서』 등이 있고, 단편소설집으로 『어두운 일요일(黑色的星期天)』, 『명류(名流)』 등이 있다. 학술저서로는 『중국현대문학사』와 『중국소설사』를 저술하기도 했다.

26) 박정태, 『1930~40년대 동북작가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 『동아인문학』 55권, 동아인문학회, 2021.06, 198~199쪽 참조.

마도 이때 취재한 내용 중에 조선인이 일제를 뒷배 삼아 저지른 범죄가 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40년 만주국 통계를 보면,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총수가 145만 384명이고, 이 가운데 도시 거주 조선인은 14만 1,854명으로 9.8%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중 농업종사자가 60% 이상이고, 공무원, 은행원, 교원, 의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지식인 집단과 상공업 종사자가 약 6-7%이고, 나머지 23-24% 정도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이들로 주로 도시에서 아편 밀매, 밀수, 매춘, 조직 폭력배 활동 등을 했다고 한다.²⁷⁾ 즉, 도시에 거주하던 일부 조선인들은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인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만주국에 사는 일반적인 중국인과 조선인은 어떠한 공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빠는 아이를 안고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누가 어떻게 한다 해도 다 싫다고 말하도록 교육시켰다. ... 또한 다시는 낯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했다. “환아, 이곳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희생된 거란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이는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를 더 꼭 껴안았다.²⁸⁾

위 인용문은 『또 다른 거래』의 마지막 문단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 리후이잉은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식민지 조선인을 통해 일제하의 만주국 통치 아래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만주국에 사는 중국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수천의 『조국이 없는 아이』는 식민지가 된 조국을 떠나 멀리 북만주 지역으로 온 조선인 소년이 가난과 멸시, 일제의 압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수천이 소년 시절 상점 점

27) 윤휘탁,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歷史學報』 第169輯, 역사학회, 2001.03, 148-150쪽 참조.

28) 리후이잉, 『또 다른 거래』, 『나의 이웃-조선인 제제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소명출판, 2017, 81쪽.

원으로 일할 때 만났던 조선인 소년을 모델로 쓴 작품이라고 한다.²⁹⁾ 그런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듯, 소설 속 화자인 ‘나’는 따뜻한 시선으로 조선인 소년을 바라보며 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한다. 그리고 소설 마지막에 조선인 소년은 중국인으로 위장해 나와 함께 나의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 검문을 받게 되고 결국 일본 병사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그때 조선인 소년은 “나는 고려인이지만 그 아인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이는 조선인 소년이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는 장면으로 다시 말하자면 민족 주권과 민족자결권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민족주의가 발현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인 소년이 자각한 반식민주의 민족주의는 민족자결과 피압박 민족의 연대를 추구하는 국제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레닌의 국제주의와 관련하여 다이핑완(戴平萬)³⁰⁾의 『만주 이야기』는 조선인 소녀를 통하여 근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가난으로 딸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조선인 소녀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과 민족차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장하는 인물로 나온다. 소설 내용을 보면, 화자인 ‘나’가 유격 부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안내해줄 사람이 예전 만주에서 잠시 살았을 때 옆집에 살았던 조선인 소녀 페이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동안 페이페이는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며 공산당이 보낸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 결국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다른 중국인 동료와 함께 도망치다가 “우

29)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31권,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204쪽.

30) 다이핑완(戴平萬)(1903~1945)은 중국 현대 소설가이자 좌익 혁명가이고, 필명은 장평환이다. 광둥성 초안현에서 태어났고, 1922년 국립 광둥고등사범학교 스페인어학과에 입학했고, 1924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7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양사’ 동인으로 활동하며 중국좌익작가연맹에 창립에 참여하였고, 좌련의 기관지인 『척황자(拓荒者)』의 주요 기고자였다. 1930~34년에 중국 동북 지역에서 류샤오치(劉少奇)의 비서와 민주성 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활동했고, 동북항일연합군 창건에도 참여하였다. 1935년 상하이로 돌아와 중국좌익작가연맹 당단(黨團) 서기를 맡았다. 1940년 이후에는 강소 북부 해방구에 있는 노신예술원 화동분원 문학과 교수와 『항전보(抗戰報)』 주간 등을 역임했다.

리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간도로 간다.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은 당시 중국공산당이 만주에서 조직한 항일 무장단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란 소설 속에 나오는 “채소를 팔고, 마차를 몰고,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페이페이, 그럼 지금도 넌 남방인이 되고 싶니?”

“아니요.”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남방인이고 중국인이고 모두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똥보 언니네도 중국인이지만 여전히 나랑 마찬가지로 불행하잖아요. 그래요. 되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불운한 법이지요.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이니깐요. 정말로 이제 남방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넌 제대로 된 ‘가오리반즈’가 되면 되겠구나.” 나는 그녀를 놀렸다. 그녀는 나를 한번 흘겨보더니 웃으면서 결연히 말하였다.

“고려인도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원래부터 조국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넌 국경이 없는 여전사가 되거라.”

“하하!”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³¹⁾

위 인용문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조선인 소녀 페이페이는 근대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현하는 표상으로 제시된다. 소설에서 페이페이는 공장에서 조선인은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만 쓴다고 불평하며 말한다. 이에 화자인 ‘나’의 도움으로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공장에 들어가게 되고, 공장에서 중국인 동료들과 알게 되고 위협에 처했을 때 중국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함께 도망치게 된다. 즉, 페이페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민족을 초월한 약자들의 연대 의식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의 연대 의식이 계급의식에 대한 각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개인의 독립과 자유와 평등

31) 다이평환, 『만주이야기』, 『중국문학 속의 한국』(홍정선, 최창록 엮음, 최창록 옮김), 소명출판, 2017, 144쪽.

을 기초로 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추구하고 같은 근대적 개인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계급의식에 대한 각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개인의식이 선행되어야만 자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근대는 자유와 평등의 주체로서 근대적 개인을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기반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인간 존엄성을 추구할 수 없는 본질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과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사회주의 기획은 바로 이런 본질적 모순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4.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조선인

페이안[非庵]³²⁾의 『어느 조선인』(1936)은 일본에 유학 온 중국인의 시선으로 일본인에게 차별당하는 조선인의 고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페이안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작가의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데 당시 조선인의 일본 유학 역시 많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학교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이 만나는 경우는 꽤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소설 속에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화자는 ‘만주국 문교부에서 파견한’ 중국 유학생인 ‘나’이고, 조선인은 일본 학교에서 유일한 조선인 학생이다. 그리고 이 일본 학교는 ‘평관이 상당히 좋은 학교’이며 “교장은 기독교도로 ‘사해동포주의’를 추구”하

32) 페이안(非庵, 1902~1951) 장쑤성(江蘇省) 출신으로 본명은 야오얼궈(姚爾覺)이다. 난징성립 농업 학교 재학 중 진보사상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 1927년 국민당 좌파로 쑨이닝현의 현장에 임명되어 계몽활동을 했다. 193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1935년 재일본 중국 유학생들이 창간한 문학잡지 『質文』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중국좌익작가연맹’에 가입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광저우로 가서 국민당과 공산당 인사들이 같이 참여한 통일전선 기관지인 『구망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필명으로 상하이 잡지에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46년 옌안으로 가서 신정부 준비작업에 참여하였고, 류샤오치, 덩이차오의 권유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51년 하이난에서 별세하였다.

고 “말끝마다 ‘만주’는 그들의 생명선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했고, 그때마다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전쟁터로 갔다.” 이런 학교에서 얼굴에 “우울과 근심 걱정, 치욕의 표정”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 친구는 항상 일본 학생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하지만 조선인 친구는 자신이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본 학생들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참아낸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할수록 일본 학생들은 그를 ‘바보’ 취급했다. 몇 마디 비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이 심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하면 자리를 피해 나가버렸다. 언제나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그는 아주 똑똑하지는 않지만 참고 견디는 것은 전교에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온 힘을 다해 학업에 열중했다. … 순하고 착한 성품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방이나 같은 반 학우들에게 미움을 샀다. … 경멸의 눈빛과 혐오하는 태도, 적대시하는 분위기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치욕을 참고 견디며, 학식과 재능으로 학우들의 존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³³⁾

일제의 민족차별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는데 정연태에 의하면, 식민지 민족차별의 층위와 양상은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법적 민족차별은 명시적인 법 규범이나 제도를 통한 차별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구조적 민족차별은 법적 민족차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명시적인 법 규범이나 제도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적, 사실적 차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행적 민족차별은 법적 민족차별,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나 위계관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한 의식과 문화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정서적·사회적 차별이다.³⁴⁾ 즉, 이 소설에서 조선인 학생이 당하는 멸시와 모욕은 일종의 정서

33) 페이안, 『어느 조선인』,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소명출판, 2017, 89쪽.

적, 사회적 차별로 때로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더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인 학생은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니 그들의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견디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제가 주장하는 식민주의와 근대화에 동조하며 이를 내면화한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채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야말로 식민주의가 완성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심리적 폭력은 모욕감뿐만 아니라 수치심도 일으킨다. 모욕과 수치는 둘 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분석학은 모욕과 수치를 호환적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³⁵⁾ 결국 소설 속 조선인 학생은 일제의 식민주의와 근대주의를 내면화한 인물이지만 민족차별로 인한 모욕과 수치로 인해 결국 내면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녀가 아들 둘은 데리고 도쿄에서 산지는 제법 되었다. 큰아들이 돈을 벌고 있어서 일본에 온 것이다. ×군은 그녀의 작은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예뻐했다. 10년 넘게 공부하는 동안 전부 그녀가 먹을 것 안 먹고 절약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그도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했다. 봄에 명문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 첫 학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일본 학생들이 그를 업신여긴다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내 **“우리가 저들보다 열등하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종든 나쁘든 그에게 참으라고 타일렀다. 잘 배워서 실력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기에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중에 겨울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는 그 학교 학생들 기세가 너무 심해서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죽어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또 말했었다. … 그녀도 어쩔 수가 없어 더이상 가라고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다시 진학시킬 계획이었다. 이번에 집에 있을 때 성격이 조금 거칠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 없이 자주

34)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 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 이후까지』, 서울 : 푸른역사, 2021, 22~23쪽.

35)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 푸른역사, 2020, 21쪽.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거나 탁자를 쾅하고 내리쳤다. 기침 소리를 내며 탄식을 하는 것도 새로 생긴 나쁜 버릇이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조센징, 조센징’ 이라고 놀렸다. 예전 같았으면 상대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아이들과 아니 모르니 다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그를 욕하자 그도 아이들을 욕하며 맞받아쳤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자 그도 아이들을 쫓아냈다. …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자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쫓아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놀란 어른이 나와서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서로 주먹이 오갔다. 당연히 그가 불리해져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 완강하고 정신이 나간 듯했기 때문에 실컷 욕을 먹으며 며칠 동안 갇히게 되었다. … 그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를 타일렀다. **“우리는 일본인보다 못하니 몇 세대 동안은 숨도 쉬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크게 먹고 어떤 일로 논쟁이 붙어도 다시는 개입해서 사고를 일으키지 말라. 그것은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 그날 밤 그가 몰래 빠져나가 석유를 사서 집에 불을 지를 줄 누가 알았겠는가. …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는 저항을 했을 뿐 아니라 무슨 독립이고 평등이나 라며 거침 없이 소리를 질러댔다.³⁶⁾

일제 강점기인 20세기 전반기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은 물론 중국의 지식인들도 식민지 또는 약소국에서 벗어나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근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이런 근대에 대한 성취 욕구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 제국과 식민지, 중심과 주변 등의 대립 쌍으로 세계를 나누고 위계화하는 근대 서구 중심의 사유를 내면화하며 발현되기도 한다. 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근대주의가 식민지 조선인에게 민족차별의 정당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결국 식민지 조선인에게 집단적인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은 군함과 대포의 위력만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 아니

36) 페이안, 『어느 조선인』, 『나의 이웃-조선인 제제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소명출판, 2017, 95~96쪽.

라 문명, 근대 합리주의, 이성 중심주의, 기독교, 자본주의의 풍요 및 과학기술의 힘으로도 모욕”을 준 것이다.³⁷⁾ 이 소설은 이런 집단적 모욕과 수치의 민족감정이 불안과 울분이 되어 내면을 놓아버린 한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20세기 전반기는 근대로 향하는 전환기로 중국과 조선은 식민주의 시대라는 조건 속에서 근대성을 추구했다. 이 근대성의 추구에는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과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반(反)근대성의 근대성’³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은 일제가 전 사회를 압제하고 있던 때라 근대성 추구도 일제의 통제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과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사회주의 기획이 서구 근화에 대한 추구 속에서도 중심축을 이루며 중국 현대사에서 큰 흐름을 이루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북작가군’에 속한 작가들은 만주에서 친구나 이웃으로 살았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해 어떤 작가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본 논문은 일제 강점기 중국인이 바라본 식민지 조선인의 다양한 모습을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 만주(국)에 사는 다양한 조선인,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조선인이라는 세 가지 작은 주제로 중국 현대소설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우리가 보는 우리와 타자가 보는 우리 사이에는 어긋남이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발견도 있을 것이다. 비록 작은 발견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조그만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37)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푸른역사, 2020, 28쪽.

38) 왕후이, 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삼인, 2005, 46쪽.

■ 참고문헌

1. 단행본

- 량치차오, 최형욱 역고 윤희,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파주 : 글항아리, 2014.
- 민정기 엮음, 고재원 옮김, 『나의 이웃-조선인 제재 중국 단편소설선 1919-1945』, 서울 : 소명출판, 2017.
-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 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 푸른역사, 2017.
- 윤휘탁 · 김경일 · 임성모 · 이동진,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 왕후이, 김택규 옮김, 『죽은 불 다시 살아나 - 현대성에 저항하는 현대성』, 삼인, 2005.
-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 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 이후까지』, 서울 : 푸른역사, 2021.
-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어인석 감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파주 : 문학동네, 2022.
- 홍정선 · 최창륜 엮음, 최창륜 옮김, 『중국 문학 속의 한국』, 서울 : 소명출판, 2017.

2. 논문

- 김시준, 『中國文學作品에 투영된 韓國人像-滿州族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中國文學』 제31권, 1999.
- 김창호, 『만주리는 하나의 공간과 한중 두 민족의 마주보기』, 『중국학보』 53권 0호, 한국중국학회, 2006. 06.
- 박재우, 『중국현대소설 속의 한인형상과 그 사회문화적 상황고 (1917-1949)』, 『中國學研究』 제11권, 1996.
- _____, 『중국 현대 韓人題材小說 시탐(1917~1949)』, 『中國研究』 18호, 1996.
- _____, 『중국 현대 韓人題材小說의 심층적 연구』, 『中國研究』 33호, 2004.
- 박정태, 『1930~40년대 동북작가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 『동아인문학』 제55권, 2021.
- _____, 『수취(舒群) 초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 -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이웃(隣家)』 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0호, 2021.
- 윤휘탁, 『'뿌리 뽑힌 자들의 방랑지!' : 조선인에게 비쳐진 만주국 사회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66호, 2011.
- _____, 『'만주국'의 통치체제 구축과 현지인 협력자』, 『아세아연구』 통권 126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06.12.
- _____,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歷史學報』 第169輯, 역사학회, 2001.03.
- 정연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식민지 체험과 새로운 근대 기획』, 『역사비평』 90호, 2010.

Colonial Koreans seen through the Eyes of the Chines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Focusing on Chinese Modern Short Stories with the theme of Koreans from the 1920s to the 1940s –

Ko, Jaewon*

This thesis analyzes three aspects of the theme of colonial Joseon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with Chinese modern short stories as texts from the 1920s to the 1940s, in which Joseon people appear as main characters. The first is the Koreans who resisted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se are young Koreans who lost their country in the novel and wander about the anti-Japanese movement. Second, there are various Koreans living in Manchuria. First of all, they are poor Koreans living in Manchukuo(滿洲國),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lony and a multi-ethnic country, and is a Korean who lives a desperate life for survival. Next is a ruthless Korean who commits crimes and tyrannizes against the Chinese with Japan on his back in the city. The last is a Korean boy and girl who overcome poverty and discrimination and awaken the sense of solidarity between the weak and the weak. These Korean boys and girls were embodied as figures who embodie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third is a Korean who has internalized colonialism living in Japan, the home country of colonialism. The novel embodies the discrimination Koreans are subjected to by the Japanese and the resulting pain.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lecturer

These works criticize Japanese colonialism at the time through the lives and sufferings of colonial Koreans in the novels, and also raise a critical mind about Western-centered modern thought that internalized confrontation and hierarchy.

Key words: Chinese modern novels, colonial Koreans, Manchukuo(滿洲國), colonialism, internationalism